

사경꾼.ZIP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6년 8월
vol. 5

기획기사

변화하는 사회연대경제,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정책동향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톺아보기

기업 소개

태안만세사회적협동조합

꽃피영농조합법인

장곡사회적협동조합

이-슈 칼럼

연대의 시간을 넘어, 자생과 혁신의 조직으로



vol.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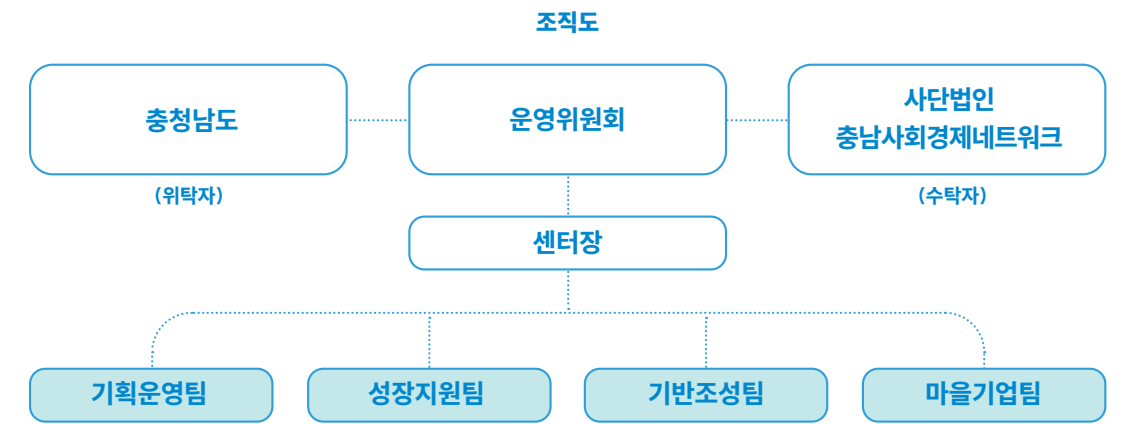
사람과 지역을 잇는 충남 사회연대경제의
오늘을 담았습니다.
정책의 흐름부터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걸어온 발자취까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연대경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4	센터소개	<u>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직도 소개</u>
06	기획기사	<u>변화하는 사회연대경제,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u> <u>강민수(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u>
10	정책동향	<u>「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톺아보기</u> <u>장효안(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u>
14	센터 사업 톺아보기	<u>기획운영팀 2026년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u> <u>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말하다</u> <u>기반조성팀 운동화 신고 만난 동료들, 연대의 첫걸음을 떼다!</u> <u>성장지원팀 우리 충남도내 좋은 기업, 이제 한눈에 찾아요!</u> <u>마을기업팀 공고부터 충남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까지!</u>
26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u>20년간 직접 발로 뛰며 이겨낸 파란</u> <u>꽃외영농조합법인 이춘복 대표</u> <u>사람들의 단단한 몸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일</u> <u>태안만세사회적협동조합 박태필 이사</u> <u>충남의 더 많은 농촌 공동체와 연결되고 싶어요</u> <u>장곡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사무국장</u>
48	사회연대경제 이-슈 칼럼	<u>연대의 시간을 넘어, 자생과 혁신의 조직으로</u> <u>노재정(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u>
54	하반기 사업 안내	<u>2026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반기 주요사업 안내</u>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매거진 <사경꿀집> vol. 5

발행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인 장효안 발행일 2026년 8월 31일 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길 31, 1층
홈페이지 www.cnse.kr 연락처 041-456-8120 디자인 (주)디자인사과나무



조직별 업무

센터장		
	· 센터 사업 및 업무 총괄	· 대외 협력 총괄
기획운영팀		
팀장 041.456.8121	· 팀 업무 총괄 및 후원사업 운영 · 예·결산 총괄, 인사관리, 센터성과 관리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선임 041.456.8122	· 센터 및 후원사업 세입·세출, 예·결산 · 센터 계약관리 및 운영관리(ERP)	· 인사관리 업무 보조 및 물품·자산관리
매니저 041.456.8120	· 센터 주간업무, 공문서 수발신, 직원 교육 · 사회연대경제 홍보활성화 사업 운영	· 센터 홈페이지 및 홍보채널 관리·운영
매니저 041.456.8123	· 사회연대경제 홍보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 팀 서무 · 회계업무 지원(품의)

성장지원팀

팀장

041.456.8127

· 팀 업무 총괄 및 후원사업 운영

· 임팩트펀드 연구용역

매니저

041.456.8128

· 사회연대경제기업 종합안내서 제공

· 경영지원플랫폼 홈페이지 운영

·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운영

· 사회적금융 홍보

매니저

041.456.8129

· 혁신타운 입주기업 코디네이팅

· 혁신타운 활성화프로그램운영

· 사회연대경제 어울림행사 운영

기반조성팀

팀장

041.456.8124

· 팀 업무 총괄 및 후원사업 운영

· 센터 플랫폼 관리 총괄

매니저

041.456.8125

· 사회연대경제 교육 운영 지원

· 네트워크 협력사업 기획 및 운영

· 네트워크 협력회의 진행

· 사회연대경제현황 DB구축

매니저

041.456.8126

· 자원연계사업 실무 지원

· 정보제공사업 운영

· 마을기업 제품 고도화 운영 지원

· 팀 서무

· 사회성과지표 측정 지원

마을기업팀

팀장

041.456.8132

· 팀 업무 및 후원사업 총괄

· 후원사업 총괄

· 마을기업 판로지원, 성과분석서

책임

041.456.8133

· 마을기업 진입지원

· 마을기업 교육플랫폼 운영

· 마을기업 모니터링 및 DB관리

매니저

041.456.8134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 인증 전환 컨설팅

변화하는 사회연대경제,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



지난 6월 30일 이재명 정부
사회연대경제 발전 로드맵 발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제28회 국무회의를 통해 20개 부처, 14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GDP와 고용 비중을 각각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일하는 사람 중 10명 중 1명은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것인데 달성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소멸과 같은 복합위기 시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 주체로 사회연대경제를 호명하고, 20개 부처에서 146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영받을 만하다. 물론 정책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정과제에 걸맞도록 2027년 예산편성, 공공구매 확대, 민간위탁 활성화, 투융자 공급 규모 확대, 세제개편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에 발표된 146개 과제 중 2026년 추진기로 한 125개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등이 보완 발표되어야 하고, 2027년 착수하기로 18개 사업은 2027년 예산 포함 부처별 추진계획이 발표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
이름을 바꾼 이유

사실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정한 것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굳건하면 좋겠지만 아직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뿌리가 깊지 못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터를 넓게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일 것이다.

뿌리 깊은 나무를 상상하며 2025년 4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사회연대경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어떤 단체가 명칭을 바꿨다면, 이는 “더 멋진 이름”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조직의 이름은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를 나타낸다. 조직은 명칭 변경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에서 명칭을 바꾸게 될 것이다.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나서 한국사회연대경제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각자도생의 사회를 함께 공생의 사회,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와 같은 우리 시대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마을경제, 시민경제, 사회적경제가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으로 더 넓고 깊게 연대해 나가기 바라는 의미에서였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부문 중심의 운동에서 미션과 업종중심의 운동으로 나아가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활성화 시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실천의 확장을 막을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복지를 보충하거나 특정한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넘어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혁신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사회연대경제는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비영리민간단체든 특정한 조직의 형태와 관계없이 우리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이를 과정 속에 실질적 임팩트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 우리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문제는 단일 조직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지식과 자원을 교환하고 중복 활동을 제거하며 집단적 혁신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자본기업들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선택될 수 있지만 사회연대경제의 협력은 존재의 본질로 받아들여진다. 이탈리아의 카라박 프로젝트 처럼 성공한 사회혁신은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학습하고, 과제를 중심으로 정렬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를 만든다고 한다. 한국사회연대경제도 이제 지역 속에서 기업을 넘어 미션과 업종을 중심으로 임팩트를 만드는 ‘임팩트 네트워크’로 진화해 나갔으면 좋겠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지역의 사회연대경제가 해야 할 일들

급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의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주민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주민참여·협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들 예를들면 돌봄, 먹을거리, 주택,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서비스의 건 강한 공급자가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역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교육과 인재양성, 지역기금의 조성, 지역 내에서 자원이 순환하도록 하는 판로지원, 디지털 전환역량의 확보 그리고 헌신적인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우리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하게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는 부족과 과함이 없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었으면

인류는 경제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전례없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이 부족 상태에서 소득이나 자산의 부족을 포함하여 정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더욱 포용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가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시대가 처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사회를 위한 아름다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툏아보기

관계부처 합동 발표 (2026.6.30.)

주요 내용 및 총남 시사점

장 효 안

총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1 추진 배경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양극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주민과 조직의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와 생활서비스를 공급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주체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계획은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판로·인재·지역혁신·법제도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 주요 정책 방향

종합계획은 3대 전략과 4대 선도모델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공공서비스 확대·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을 목표로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3대 전략의 핵심 사업과 선도모델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대 전략의 핵심 사업과 선도모델

비전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목표 (30년)	공공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 대응	
	· 사회연대경제 GDP 비중 7%, 고용 비중 6% · 선도기업(연매출 100억 또는 고용 100명 이상 기업)1,000개, 사회적자본 40위(OECD 평균) 달성			
선도모델	돌봄	주거	에너지	농어촌
3대 전략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참여 연대 혁신			

출처: 사회연대경제정책센터 설립 세미나 발표자료(2026.7.20.)

성장 및 경쟁력 지원



기존의 창업 중심에서 성장·투자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은행권 대출·보증·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예비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위탁 확대, 공공구매 실적 의무화, 민간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 이상으로 완화한다.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본 계획은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전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토대로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 국가· 시도별 기본계획, 통합 플랫폼, 통합 통계, 실태조사,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분산·운영되던 중간지원조직을 총괄·연계하기 위해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취약한 지역 생태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는 데 있다. 혁신모델은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 즉 지역주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혁신·지역활성화 선도·지역순환경제 구축·생활서비스 제공형 등의 모델을 제시하되,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선도 모델 창출 및 확산



지역 주민의 수요가 높고 생활과 밀접하며,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인 주민 참여와 협력이 잘 발휘될 수 있는 4개 중점 분야가 선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돌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의료·요양·식사·주거 등 분절된 서비스를 연결하고, 농어촌 등 공급 취약지역의 핵심 돌봄 공급자로 참여
주거	주거·돌봄·교육·의료를 결합한 사회적 주거 확대, 특화임대주택과 매입형 주택 공급 및 운영기관 전문성 강화
에너지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
농어촌	돌봄·먹거리·교통·시설 운영 등 생활서비스와 특산물·관광 등 지역자원 기반 소득모델을 함께 육성

3

충남에 주는 시사점

충남은 고령화와 농어촌 지역 비중이 높아 통합돌봄, 먹거리, 교통, 주거 관리 등 주민 밀착형 서비스 분야에서 정책 활용 가능성이 크다. 아산의 어르신 통합급식·돌봄 모델, 공주의 제민천 타운마이스, 홍성의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협동조합 등 충남 사례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만큼, 이 사례들을 분석하여 충남에 적합한 후속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구매 확대에 대비해 기업의 제품 등록, 표준 서류, 품질 관리, 납품 체계, 나라장터 진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분절적인 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창업·교육·성장 지원·금융 등 다양한 영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현장과 공공기관, 대학 등을 연계하는 광역 협력 거점의 기능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협의회와 각종 회의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때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주민과 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기획운영팀

2026년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말하다



「2026년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여, 사회연대경제 분야 청년인력 유입 활성화 및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참여청년 및 청년매니저)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서 일 경험을 쌓아 경력 축적과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참여청년(청년 매니저 포함)과 참여 기업을 매칭하여 약 5개월간 실무 업무를 수행(취업형 인턴, 창작형 등)했습니다. 직무 및 역량 강화 교육, 1:1 멘토링, 사회연대경제 진로 탐색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78개의 기업, 총 84명의 참여청년 및 청년매니저가 매칭되어 기업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일경험을 쌓고, 2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직간접노무비, 운영비, 성장멘토비용 등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일체형 지원을 통해 청년 구직자와 현장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북부권의 도시지역과 남부권의 농촌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고른 비율의 청년참여비율을 나타내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의 성격상 정책 현장 및 운영 과정에서 주요 어려움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경험 기간의 단기성(5개월) 및 고용 연속성 지원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5개월 안팎의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어, 참여 청년 입장에서 진정한 직무 숙련도를 쌓거나 장기적인 커리어를 구축하기에 기간이 다소 짧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다보니 참여청년을 고용한 참여기업과의 고용지속성 담보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실제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재정 여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일경험 지원 기간(인건비 지원 등)이 종료된 후 청년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부족하여 실제 정규직 전환율 성과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기업의 규모 및 역량 격차에 따른 일경험 기회의 질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규모 형태의 참여기업, 실무인력이 부족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



동조합의 경우, 청년에게 체계적인 직무 교육이나 1:1 멘토링을 제공할 내부 여력이 부족하여 청년이 단순 잡무에 배치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기업 인력운영의 자율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일경험 기회의 구체성(근로기회 제공 우선, 역량강화 등 교육 및 실습 우선 등)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처우 및 예산·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턴십/일경험 프로그램 대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처우 수준이나 복리후생이 낮은 상황에서 일경험을 통해 오히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지역과 달리 군 단위 농촌지역의 경우 대중교통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참여청년 출퇴근의 문제점이 드러나 매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나 지자체 예산 편성 시 참여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기간의 연속성, 퇴직금, 복리후생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넷째, 청년 구직자의 인식 및 직무 매칭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사회연대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의 직무계획서를 기준으로 일경험 대상지를 선택하다 보니 청년이 인식하여 선택한 결과와 실제 근무기업의 환경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스펙 형성 목적으로 진입할 경우, 사회연대경제의 가치(사회적 가치, 연대, 협동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전공·직무와 관련해서도 청년의 니즈와 참여기업의 인력운용 욕구간의 차이로 매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예: IT 개발, 전문 마케팅, 디자인 등)와 현장 조직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단순 지원 업무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는 참여 청년, 참여 기업(조직), 그리고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참여 청년은 5개월간 현장 업무를 경험하고 사전 직무교육 및 1:1 멘토링을 받아 구직에 필요한 실무 경력(Work Experience)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치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영역을 접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및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

분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매니저의 조력, 기업가 1:1멘토링으로 참여 청년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경험 수행 완료시 정부 인증 이력확인서를 발급하여 청년이 희망하는 기업 채용 또는 타 기업 취업 시 정량적·정성적 스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기업·조직의 경우, 청년 인력 유입을 통해 조직의 혁신 동력을 얻고, 업무 수행 역량이 검증된 청년의 정규직 채용 기회 마련하여 우수 인력 채용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청년 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 교육 부담이 축소되어 기업운영 및 인력개발비용 등에서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젊은 감각의 마케팅, IT 활용, 신규 사업 기획 등 조직 내 업무 효율성 개선 및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경우,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정착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 정주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인력

난을 해소하고 가치 중심의 지역 경제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대한 이해와 직무역량 강화, 전문성있는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청년과 기업, 단기·장기의 문제 등 시범사업 특성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청남도 청년 일경험 사업은 그동안의 지원사업과 달리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의 청년층 유입 유발요인을 제공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참여기업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반조성팀

운동화 신고 만난 동료들,
연대의 첫걸음을 떼다!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각자 바쁘게 일하던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이 운동화를 신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천안 아우내심플스테이에서 열린 「2026 충남 사회연대경제 활동가 명랑운동회」 현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명랑운동회, 단순한 체육대회가 아닌 연대의 출발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성장을 돕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센터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바로 사람과 조직을 잇는 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연대경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움직이는 경제이지만, 정작 현장의 활동가들은 각자의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이웃 조직의 동료를 만날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로의 얼굴을 익히며 관계를 쌓고 이곳에서 맺은 관계가 이

“레크레이션을 엄청 열심히 준비해주신 것 같았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참가자 소감(만족도조사 주관식 응답 중)



후 공동사업과 협업으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하며 명랑운동회를 만들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협업까지

이번 운동회는 (사)충남사회경제연대가 주최하고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가 공동 주관했고, 협동조합 아우내공동체와 (주)천우당이 후원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참여기관들은 4월부터 TF를 꾸려 기획회의와 콘텐츠 회의, 사전답사까지 두 달여의 준비 과정을 함께했는데요. 여러 기관이 예산과 역할을 나누어 하나의 행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사회연대경제다운 협업의 경험이었습니다.

운동회에서 만난 51명의 동료들

행사 당일에는 도내 곳곳에서 모인 활동가 총 51명이 아우내심플스테이 잔디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개회식과 안전교육, 단체사진 촬영에 이어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이 시작됐는데요. 소속기관을 의도적으로 섞어 구성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려는 작은 장치였죠. 처음엔 서먹하던 참가자들도 함께 뛰고 협동하고 응원하는 사이 어느새 한 팀이 되었습니다. 저녁 네트워킹에서는 서로의 활동과 고민을 나눴고, 2일 차에는 사진콘테스트와 소감나누기로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을 넘어 이어진 연대의 끈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여기관이 함께 평가회의를 열어 운영을 돌아보고 내년의 개선방향까지 그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부문과 지역을 넘어 만들어진 동료들의 연결망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맺어진 관계가 충남 곳곳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센터는 앞으로도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을 잇는 역할을 든든히 해나가겠습니다.



성장지원팀



우리 충청남도내 좋은 기업, 이제 한눈에 찾아요!

충남도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안내서 개정판 발간!

여러분은 충청남도에 어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싶어도, 막상 “어디서 뭘 파는지” 몰라 그냥 익숙한 마트 제품을 집어 들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아쉬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처럼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큰 답답함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있지만, 정작 우리 지역의 사회연대경제기업과 판매물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습니다. 기업은 좋은 제품을 알릴 창구가 부족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구매 기관은 제도 취지를 살리고 싶지만 정보 부족으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죠.

“이번 안내서 덕분에 기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고,
우선구매나 협력사업으로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충남도 관계자의 후기



e-카탈로그

www.충남사회적경제.com

이 오래된 숙제를 풀어보고자 충청도와 센터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정보를 한데 모은 「충청남도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7월부터 책자와 e-

카탈로그로 만나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내서에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연대경제기업 220여 개의 기업명, 업종, 대표자, 연락처는 물론, 대표 제품의 특징과 사진, 가격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구매 기관이 유형별로 기업을 손쉽게 탐색하고 공공구매 등으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책자 앞부분에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쉽게 소개하는 내용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2025년 초판에 이은 두 번째 발간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새로운 사회연대경제기업을 발굴해 내용을 채워갈 예정인데,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구매자가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해 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분류입니다. 지난해까지 ‘식품’처럼 큰 카테고리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던 것을 장류, 떡류, 면류, 스낵과자류, 전통간식 등으로 세분화했고, 같은 제품을 파는 기업이 여럿이면 ‘들기름’을 다섯 번 나열하던 방식 대신 ‘들기름’ 항목 하나에 기업별 페이지만 표기해 목록을 훨씬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기업별 홈페이지·블로그·SNS 주소까지 링크로 연결해, 클릭 한 번이면 바로 구매나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를 ‘찾는’ 안내서에서 ‘구매로 연결되는’ 안내서로 한 단계 나아간 셈입니다.

한 충남도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싶어도, 막상 어떤 기업이 있고 무엇을

파는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안내서 덕분에 업종별로 기업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게 됐고, 링크만 눌러도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우선구매나 협력사업으로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는 기대도 전했습니다.

e-카탈로그는 www.충남사회적경제.com에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www.cnse.kr)에서도 연결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충남 도내 좋은 기업들을 찾아 이번 기회에 한 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을기업팀

공고부터 충남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까지!

2026년 상반기 신규 마을기업 선정 지원 후기

주민들이 함께 키운 꽃을 활용해 카페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가꾼 채소를 판매하여 마을 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기업입니다.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보조금 5천만원, 자부담 20% 1천만원을 더하여 총 사업비 6천만원, 재지정마을기업은 3천만원에 자부담 20% 6백만원을 더한 3천6백만원, 고도화마을기업 2천만원에 자부담 20%을 더한 2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6년 마을기업은 충청남도 공고를 거쳐 현장실사, 충청남도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실사에서는 담당 시군 주무관과 함께 마을기업팀이 각 마을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기업의 강점과 마을기업으로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보완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마을기업의 4가지 요건인 공공성, 공동체성, 지역성, 기업성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장실사 후, 충청남도 심사·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필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과의 갈등관리,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등 기업 실무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운영 경험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여 우수 마을기업 사례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을 통해 신규 마을기업들은 각자의 마을에 맞는 사업방향과 운영의 방식을 고민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충남 신규마을기업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산

바리실할배할매들
영농조합법인

마을에서 재배한 메리골드 꽃을 활용하여 꽃차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배할매들이 모여 청정지역인 금산에서 꽃을 공동재배하고 꽃차로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주

농업회사법인
믿음의집(주)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쌈채소를 재배하고 판매합니다. 집에만 있던 어르신들이 직접 쌈채소를 가꾸어 용돈을 버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부여

황골장미마을
협동조합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양송이치킨파이와 장미음료가 시그니처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성2리는 마을기업 운영에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우수한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여

만세장터
영농조합법인

성홍산사랑나무 인근에 위치한 마을기업입니다. 오란다, 김밥,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임천면 여성 임원들이 반찬봉사를 하던 것으로 계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으로 지역에서 인기 있는 맛집입니다.

아산

수피아
사회적협동조합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마을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사람과 공간, 자원을 연결하는 카페 공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논산

사회적협동조합
새동네

지역의 농산물인 열갈이배추의 세척과 손질 등 전처리 사업을 통해 농산물을 부가가치를 올려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동네라는 이름처럼 귀농 귀촌한 주민들과 기존의 원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로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산

물안리
영농조합법인

주민들이 함께 두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는 축제와 체험을 추가로 진행 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익숙한 먹거리를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관광문화 자원으로 발전시켜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꽃과 채소, 두부처럼 평범한 자원도 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진행된 지정 과정을 거쳐 새롭게 지정된 충남의 신규마을기업 7개소가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주민이 머물고 다시 찾는 마을을 만드는 든든한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20년간 직접 발로 뛰며 이겨낸 파란

못 말리는 맥문동 사랑꾼 이춘복 대표

글 김진리 에디터

꽃피영농조합법인(이하 ‘꽃피’)은 2006년 이춘복 대표가 주축이 되어 청양 장평면 화산리 마을 주민과 함께 농가의 이익을 창출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마을기업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주민 및 농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회적 가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20년간 경영을 지속해 온 오랜 경험과 경력만큼 꽃피는 맥문동 가공식품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제일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춘복 대표는 꽃피의 상품을 자랑하기 보다 인터뷰 내내 청양의 질 좋은 맥문동과 그 뛰어난 효능에 관해 칭찬하기 바빴다. 맥문동이 알려져야 청양의 더 많은 맥문동 농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일까? 못 말리는 맥문동 사랑꾼 이춘복 대표를 만났다.

‘꽃피’라는 말이 예쁘게 들리네요.

꽃피에게 마을기업의 이력이 있던데, 마을의 이름인가요?

동네 이름이 화산리예요. 꽃 화(花), 피 산(山) 자를 써요. 그걸 그대로 상표 등록을 했지요.

꽃피가 설립된 게 2006년으로 올해 만 20년이 넘었는데요.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제가 20대부터 한약재 유통업을 했어요. 가진 것도, 땅도, 배운 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 일찌감치 서울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2년도 안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에 한약재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모르는 건 물어보고 메모하고 저녁에 와서 쳐다보고, 책도 많이 읽

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양에 정말 좋은 한약재가 있더라고요. 맥문동과 구기자요.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기관지, 천식, 당뇨 폐 질환에 백이면 백 맥문동을 처방해요. 맥문동으로 치료되는 사람을 많이 봐 오기도 했고, 이 쓰임과 전국에 유통되는 상황을 보니 이걸로 식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마을에서 저에게 이장을 시켜 주시더라고요. 동네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마을에 맥문동 농가가 많잖아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맥문동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 꽃피영농조합법인 이춘복 대표

꽃피는 청양의 질 좋은 특산물, 대표님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마을에 대한 책임감의 결실이네요.

식품 가공을 하기 전에도 마을에서 맥문동을 알리기 위한 축제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방문해서 맥문동을 홍보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금, 토, 일 3일간이어도 축제라는 게 돈이 적지 않게 드는데, 우리 마을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도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축제는 5년 정도 진행했어요. 그 이후엔 포기했지만, 그래도 전혀 수지 안 맞는 일은 아니었어요. 청양 신문이나 언론에 나간 홍보 기사를 보고 도에서 연락해 왔어요. 맥문동을 알리려고 사업도 하려고 하고 축제도 기획하고 지역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니 지원을 하고 싶다고요. 도에서 뭘 지원해 주면 되겠냐고 묻길래 맥문동 농가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맥문동의 효능이 알려질 만한 홍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더 지원할 건 없느냐고 재차 물기에 맥문동 가공 공장을 신축해서 상품을 만들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그때 이미 특허를 받아둔 티백과 화장품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맥문동으로 식품 같은, 가공품을 만든 건 우리가 유일했어요. 그런 도전 의식과 가능성을 보고 가공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공 공장은 2010년에 완공돼서 2011년에 정식 운영을 했는데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유통하는 건 제가 그간 한약재상을 하며 알아 왔던 유통 구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판매와 유통을 하는 전문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것 좀 팔아달라 사정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 와중에 이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요.



좋은 거래처를 만나기 어려웠던 거네요.

전국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행사장에서 종일 정장에 넥타이 매고 맥문동이 좋은 이유를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설명했어요. 몇 년을 제 발로 직접 뛰었어요. 욕심이 생겨서 수출도 하고 싶고 시장 조사도 하고 싶어서 해외도 갔어요. 많이 나갔죠. 많은 배움과 경험이 됐어요.

지금 꽃피에서 만드는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왕의 맥문동>이라는 이름으로 진액과 분말 형태가 있습니다.

제품은 그럼 지금 어떻게 유통하고 있나요?

가장 큰 매출 구조는 TV가 핵심이네요. PPL로 맥문동을 노출하고, 공영 쇼핑에서 매달 거르지 않고 본 방송을 2회 이상 진행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꽤 큰 성과 같은데요. 공영 쇼핑에 입점시키고 그걸 지속하는 게 꽤 어려울 것 같은데 매번 해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팔리면 계약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MD들 가차 없어요. 매출이 없으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소비자들이 알아주고 꾸준히 팔리니까 계속할 수 있어요. PPL 광고를 하면 맥문동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니 관심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요즘은 경쟁이 심해져서 유사한 제품이 많아졌어요. PPL 비용은 꽃피에서 내는데, 타 업체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래도 그분들도 잘되면 좋죠. 그런데 타 업체에서는 대체로 중국산을 쓰거나 다른 한약재를 섞어서 싸게 팔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청양산 맥문동으로 믿을만한 원물을 쓰고 맛에도 자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알아주시는 것 같네요. 워낙 원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꽃피에서 지난 3년간 전국 맥문동 생산량의 60% 이상을 취급했더라고요.

60% 이상이라니 정말 많은 농가를 알고 지내시겠네요! 농가들과 관계는 어떤가요?

화산리뿐만 아니라 청양과 그 옆에 붙어있는 부여의 농가들 맥문동까지 수매해요. 시세보다 10~20%씩 높게 수매해요. 농가들은 다 고맙다고 하죠. 꽃뽕이 맥문동을 열심히 알린 덕에 값도 좋아졌다고요. 원물이 싸 봐요. 타산이 안 맞으면 농가에서는 맥문동 농사 안 짓죠. 계속 재배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일하시며 보람이 있을 때는 언제인가요?

2022년에 사회 서비스 활성화 부문에서 꽃뽕이 농가 소득 창출 기여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아무나 주는 건가 싶었는데 전국에 하나 주는 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감사했죠.

청양에서의 활동이 활발하고 오래된 만큼 청양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 조성된 이후 청양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주자 대표도 맡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혁신타운을 활성화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면 업체별 맞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있어요. 꽃뽕이 시작할 때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판로 지원을 해야 할 곳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품 제작에 필요한 설비와 재료가 필요한 기업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런 필요에 따라 맞춤 지원이 가능한 공간이 된다면 좋겠어요. 청양 주민들 인식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몰라요. 회의하는 공간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혁신타운 관리하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의 성의가 참 고마워요. 기업별로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지원 사업들이 뜨면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선별 제공해 주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공유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혁신타운이 변화되기 위해선 어떻게 필요할까요?

핵심은 도의 지원이죠. 도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혁신타운을 만들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할 힘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별도로 국이 생겼고 준비도 했다고 하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해요. 또 기업 간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 좋겠네요. 이제 우리가 홈쇼핑 유통 쪽은 잘 알게 됐으니깐 같이 입주한 업체들에게 이 시장에 진입할 때 너무 큰 어려움 없도록 이런 노하우도 전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쪽 나눈 이야기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느껴지네요.

어려서 많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쌀이 뭐예요. 보리쌀 한 톨 먹기도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풀만 먹고 산 거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행정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해도 여전히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웃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길, 나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알잖아. 그걸 잘 알잖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역시 맥문동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전염성이 높



은 호흡기 질환이 한 번씩 세상을 휩쓸고 갈 때마다 시장에서 맥문동이 제일 먼저 없어지거든요. 한방으로 유명한 중국 같은 곳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이런 맥문동의 효능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좋은 땅에서 우리 농가들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청양의 맥문동을 한 번씩 접해보시면 좋겠어요.



태안만세 사회적협동조합의 ‘돌봄’이라는 말

사람들의 단단한 몸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드는 일

글 김진리 에디터

인터뷰 태안만세사회적협동조합 박태필 이사

박태필 이사는 오랜 교사 생활을 뒤로하고 태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안만세사회적협동조합(이하 ‘태안만세’)을 설립했다. 설립 직후였던 2024년부터 2025년은 서비스 제공보다 조직 운영을 위해 환경과 시스템을 차곡차곡 쌓아 만들고,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쓰는 언어를 배우는 데 힘을 다했다. 2026년 태안만세는 태안의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하반기,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으로 조형민 씨가 태안만세에 입사했다. 형민 씨는 지적, 지체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진 않을까 하던 괜한 고민이 무색할 만큼 박태필 이사는 형민 씨와의 협업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그간 숨 가빴던 하루하루의 짐을 형민 씨 덕에 덜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표정이 밝다.

인터뷰 도중 마침 형민 씨의 명함이 배달되었다. 박태필 이사는 깜짝선물이라며 못 기다리겠다는 듯 형민 씨를 불러 명함 상자를 건넸다. 우리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사회 초년생인 형민 씨에게 공손하게 명함을 교환하는 예절을 일러주었다.

이제 태안만세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태안만세를 왜 만들었고, 지금까지 어떤 3년을 보내셨는지 궁금해요.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 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생활, 영양, 의료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거기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에 정서적, 문화적 돌봄도 필요하고요. 그들을 통합 돌봄으로 돕기 위해 설립하게 됐습니다. 돌봄 시스템의 방향성이 현재 장기 요양에서 통합 돌봄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조직을 설립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선택했고요. 2024년 인가 받았는데요. 인가만 받았지, 사실 운영은 막막했어요. 2025년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무엇인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년 동안

교육만 60회 넘게 다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었죠.

다행히 2025년 하반기부터 긴급 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다행히도 올해 그 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연장되었고요. 또 2026년 3월 통합 돌봄 법이 시행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죠. 제2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통합 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되었어요. 본격적으로 막 달리기 시작한 건 올해 5월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2026년 8월 기준) 총 긴급 돌봄 6명, 12명의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요양보호사 직원 12명이 늘어난 거죠.

인가 후 3년 동안 국가사업의 변화라는 빠르고 거센 파고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 오신 거 같아요. 힘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떠나서, 일하면 할수록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저한테 돌아오는 월급도 없긴 하지만요. 돌봄 공백이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태안에서 통합 돌봄 수행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없으면 저분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교사 생활을 했거든요. 천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후회도 많이 했어요. 어르신 댁 가면 예쁜 것만 보지 않잖아요. 냄새나는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하고 온전한 대화는 고사하고 늘 같은 말만 계속하는 어르신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어느 날은 요양보호사분이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어르신이 피를 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급차에 실려 보냈는데 독거노인이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읍사무소 복지과에 전화해서 담당자를 불렀어요. 민과 관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어르

신 입원을 시키고... 병원에 두 달 동안 입원하셨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지셨어요.

그 순간이 있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아직 제가 힘이 좋아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업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집은 계단이 있거나 휠체어 타기에 불편한 집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업고 다니다 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좋아지시는 분들 보면 또 보람이 되니까요. 점점 이쪽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자꾸 빠져들면 돈 못 버는데(웃음).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으로 든든한 청년이 입사했다고 들었어요. 이제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형민 씨가 출근하고 있어요. 형민 씨는 지적장애와 지체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예요. 태안만세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에 관해 이해를 많이 하고 사는 데도, 막상 형민 씨가 내 직원이 된다고 생각하니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일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닐까?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 스마트 시대에 사는 청년이라 그런지 컴퓨터나 시를 잘 못 다루는 중년보다 훨씬 나아요! 장애라는 건 약간의 불편함과 느낌일 뿐이지 불능이 아니거든요.

요양보호사가 12명이고 돌봄 사업이 시행 초기다 보니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 세워준 시스템도 없고 제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서 제출할 때도 있고 너무 바빠서 내심 툭툭한 청년이 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스스로 하기는 힘들지만, 잘 알려주면 잘합니다. 그리고 형민 씨에게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는 형민 씨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부탁해요. 30분 정도 걸려요. 어떤 회사에서는 아래 직원에게 커피 가져오라는 말이 직장 내 갑질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커피를 내리는 업무가 형민 씨의 장점을 살리고 좋아하는 일이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렇죠. 모든 말과 행위는 맥락으로 봐야죠. 직원에게 알맞은 업무를 지시하고 배치하는 게 좋은 조직의 조건인 것 같아요.

형민 씨가 우리에게 온 사업의 이름이 ‘일 경험’이잖아요. 능력 좋은 사람 일 경험 안 시켜도 다 해요. 말 그대로 일 경험을 시켜줘야 하는 사람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방향을 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요. 기업이 편하자고 사람 뽑는 게 이 사업의 취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군청에 회의 있을 때도 형민 씨랑 같이 가요. 군청에서 의아해하더라고요. 우리 새로 온 직원이라고 소개했죠. 자리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면서요. 형민 씨한테는 1시간 반 동안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용히 지켜보고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잘 들어보라고 당부했어요. 아직 가르칠 게 많긴 해요. 처음에는 이틀 동안 수업을 안 깎고 와서 군청 회의 나가야 하니 수업 깎고 오라고도 하고, 손님 오시면 인사부터 하고 음료 권하라고 이르고... 그래도 이제 형민 씨가 출근한 지 일주일 됐는데요. 정말, 일주일 별거 아닌 거 같죠? 저는 이 일주일 동안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그 자체의 행복감이 있어요. 밥을 같이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도 하는데 점심을 같이 먹게 되니 정말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깜짝 취직 선물로 형민 씨의 명함을 준비했어요. 생애 처음 갖는 명함이니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자랑하라고 하려고요.



형민 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가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출퇴근 서류 정리를 중점적으로 맡고 있어요. 또 하나는, 형민 씨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하기를 이전보다 지금 자기가 많이 똑똑해졌대요(웃음). 그래서 이제 홍보를 맡기려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대상자 어르신들 만나 뵈러 다닐 거거든요. 동행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물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잘 만들든 못 만들든 해보는 거죠! 그것만 해줘도 대만족이에요. 실수는 있겠지만, 제가 멘토가 되어 같이 일할 거니까요. 기대가 돼요. 이 사업이 계속 되면 저는 계속 고용하고 싶어요.



태안만세가 지난해 충남 사회연대경제 IR 대회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받았죠? 작년에 교육만 받으려 다녔다고 하시더니 꽤 큰 성과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요.

충남에서 열린 IR 대회에서 돌봄으로 수상을 한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진 실질적인 최종 목표는 요양원이에요. 저희 부부의 양가 부모님이 네 분 다 살아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암과 치매가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병원에 오가고 있어요. 고민해 보니 요양원을 하면 내 부모 모시면서 돈도 벌 수 있을 거 같은 거예요. 내 부모를 모시는 요양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요양원을 만들고 싶으세요?

태안의 해양 치유와 농업 치유를 활용할 거예요. 바닷바람을 쐬면서 바닷가를 산책하고, 태안의 좋은 땅 아담하게 텃밭을 꾸려서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도 짓는 거죠. 요양원이라고 누워만 있는다는 편견을 깨고요. 지역적인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태안에 해양 치유센터가 설립되었거든요. 협력할 수 있다면 빠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될 겁니다. 발표할 때 제가 제일 처음 말한 게 이 말이었어요. “부모님 계시죠? 지금 어떻게 모시고 계세요? 아니면 그전에 어떻게 모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모실 예정이세요?”

많이 공감해 주시는 방청객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눈물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태안에 노인 인구가 많으니, 실현을 위해
어서 태안만세에서 속도를 내야 할 거 같은데요?

그려야죠. 태안에 인구 비율 중 노인이 40% 이상입니다. 협력하는 지자체에서도 의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겠어요. 지자체의 통합 돌봄에 관한 이해도가 더욱 넓어지고 가사 지원서비스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을 조금 더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태안만세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도 군청에서조차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명칭도 생소해하시고. 그래도 이젠 태안만세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이라도 알게 되셨으니까요(웃음).



오늘 인터뷰 자리에도 공무원분들을 초대하시기도 했고
여러 인식을 알리고 또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태안만세의 공간도 그걸 위해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폐가를 개조한 건데요. 처음 개조한 목표는 노인들의 쉼터가 되길 바랐어요. 바닥도 일부러 장판으로 해놨어요. 어르신들은 바닥에 철판덕 앉아 쉬는 것에 익숙하시니까요. 바깥 담벼락 아래에도 의자와 평상을 놓아두었어요. 거기가 우리 동네 명물이에요. 남은 자재로 만든 평상인데, 그게 노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은 만들어 놓고서 알았어요. 지나가는 분들이 앉았다가 쉬어갈 수 있는 자리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너르게 상상해 본다면 치매 어르신이나 장애인 청년들이 느린 속도로 운영하는 카페 같은 실험적인 공간으로 쓰여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달들에 어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 교육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매년 의무교육으로 노인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시골에서 강사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 강사를 해버리는 게 어떨까 해서 실용성 반, 욕심 반에 시작하게 되었네요. 훗날 위촉 강사가 된다면 시골 농어촌지역에서 강사를 구하기 힘든 학교와 요양보호사들의 일터에 학생 인권과 교권, 노인 인권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는 내용이라 지금 교육과정 이수하는 게 정말 힘들긴 하지만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어요.



충남의 더 많은 농촌 공동체와 연결되고 싶어요

진짜 농촌다운
돌봄에 관한 이야기

글 김진리 에디터

인터뷰 함께하는장곡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 사무국장



함께하는장곡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함께하는장곡)은 장곡면 주민들이 공동체 돌봄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공공성에 바탕을 둔 돌봄을 스스로 조직할 수 있도록 2022년 설립된 농촌 공동체다. 장곡면 행정조직과 주민자치회 및 지역 단체와 협업하면서 면 안에 속한 마을마다 돌봄반장을 세우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한다. 함께하는장곡은 사업 대상자가 단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진 주민 주체가 되길 바란다. 지역과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역량을 키우고 친밀하고 따뜻한 챙김을 주고받으며 연결과 관계를 확장하고 그 소중함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한다.

2026년, 함께하는장곡은 그들이 거점이 되어 충청남도의 사회적 농장과 공동체를 발굴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함께하는장곡은 충남의 다양한 농촌 공동체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정부 정책과 시장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농촌의 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사회적 농장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가 생길 때 해결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동료가 되길 바라며, 연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함께하는장곡의 시작은 어땠나요?

2019년 주민들이 모여서 장곡면 발전 계획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농촌 정책이 실제 생활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마을만들기 활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넓혀 나가야겠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모여서 '앞으로 장곡면에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제가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돌출된 요구가 노인 복지에 관한 요구였어요. 워낙 고령화가

심각하기도 했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마을 리더들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다들 6~70대 초반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마을 어르신을 돌보거나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자신들도 10년만 지나도 도움이 필요해질 텐데 자녀가 때마다 내려오기도 어려울 테고 마을에 돌봐줄 젊은 후배도 없다면 내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치매가 와도 내 집과 마을을 떠나지 않고 싶다는...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해보고 있었던 사회적 농장들과 함께 모여서 장곡면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꾸렸어요. 2년 동안 네트워크를 수행하고 나서, 먼 차원에서 활동을 조직하자고 했죠. 앞으로 이런 필요가 늘어날 거고 그걸 같이 준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함께하는 장곡을 만든 거예요.



장곡면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회적 농장과 네트워크를 꾸렸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회적 농장에 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돌봄과 농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요.

도시라면 모든 서비스와 재화가 시장이나 공공에서 공급이 되죠. 쓰레기 내놓으면 쓰레기차가 갖고 가고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고 미용실, 병원이 가까이에 있고 버스와 지하철도 쉽게 탈 수 있지만 농촌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해소되지 않는 것들을 관계 중심으로 풀어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쓰러졌다고 하면 차 가진 사람이 모셔다드리기도 하고, 매일 점심마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같이 밥해 먹고 서로 영양도 챙기고 안부도 챙기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요. 농촌에서는 그냥 이렇게 통합적이고 또 자생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생활 양식이었던 거예요. 도시에서라면 개인이 보건소나 문화센터, 식당에 찾아가는 식으로, 기능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들이죠. 농사는 이곳에서 혼자 집에 있지 않고 사람과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하는 통로, 자신의 할 일과 역할이 되는 살림살이에요. 일상을 이어갈 루틴, 힘, 삶의 기둥인 거죠. 그런데 몸이 아파서 농사를 못 하게 되거나 그저 혼자서만 농사를 짓게 되면 고립되는 거죠.

사회복지 기관, 보건소 등에서는 서비스만 제공하지, 관계를 연결하는 힘이 부족하죠. 농사를 함께 하면 주민이 생활 돌봄 활동을 주체로서 스스로 하게 돼요. 농사라는 건 자율적이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나 얼마큼 어떻게 일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서 콩이라도 따고 만들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수확한 작물로 맛있는 걸 해 먹는든지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만나는 장으로서 기능해요. 여기는 문화센터도 복지관도 없잖아요. 농장은 만남의 장이 되고 그걸 준비하고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분들이 장곡면에는 많이



있어요. 연결되는 사람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어르신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같은
것을 같이 나누는 거죠.



연결이라는 말을 계속해 주고 계시네요.
함께하는장곡사협에는 마을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하고 연결하기 위해 돌봄반장이라는
역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획인지 궁금합니다.

함께하는장곡을 설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년간 지원하는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농촌 심부름센터를 구상했어요. 그런데 수요를
발굴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요. 이를테면
정수기가 고장 났다고 한다면, 어르신들은 A/S
접수 어려워서 안 하시거든요. 우리 집 아저씨나
옆집 아저씨가 해줬는데, 지금 다들 안 계시고
그나마 부탁할 사람들은 다들 바쁘고 아는
사람한테도 미안해서 부탁 못 하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하기까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처해서 이웃을 차에
태워 병원 모셔다드리고 집에 찾아가 안부 묻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게 일자리가 되는
순간 호혜적인 관계와 선의로 했던 마음들이
약화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그런
일을 하던 분들이 그 일을 계속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기로 한 거죠. 마을 단위의
관계와 정보가 먼 단위까지 모이거나 가닿지
않거든요.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마을마다

돌봄반장님을 세운 거예요. 반장님들이 마을과
어르신들의 현황을 전달해 주세요. 마을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필요한
자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하는
그룹으로 돌봄반장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장곡면에 32개 리가 있는데 지금은 28명의
마을의 돌봄반장님이 계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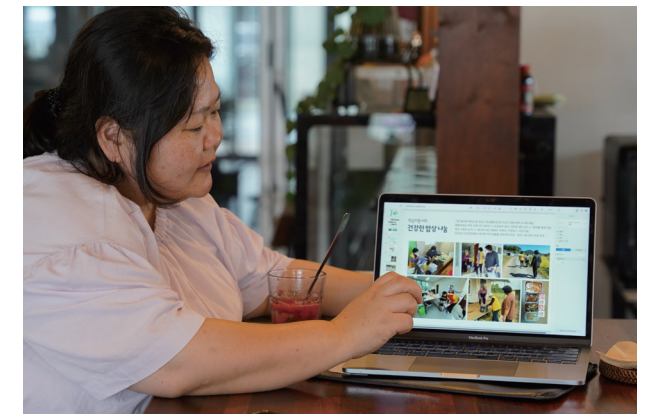
마을마다 상황이 달라 풀어나가야 할 방식도
다르다고 해주셨는데요. 돌봄반장님들이 가지고
오는 의제는 보통 어떤 것인가요?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지금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급 자격이 안 돼서 꼭 필요하지만, 도시락 지원
사업 같은 것조차 못 받는 노인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하루에 버스가 세 번 오는
마을, 두 번 오는 마을의 편의 수준과 비용이
다를 거고요. 그럼 어떤 할머니가 버스 타고
병원에 갔다가 올 때는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몇만 원이라더라, 어느 곳은
마을이 너무 넓어서 회관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부식비 지원이 되고 어디는 모자라서
각출해서 식사하신다더라 하는 등 여러
사정들을 듣게 돼요. 이렇게 발굴된 이야기들이
사업이 되고 어떻게 대상자 선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긴밀히
논의하고 기획해서 지원하죠.

그간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나요?

먹거리, 도시락 나눔 사업도 하고요. 공동 밥상,
같이 먹는 밥상을 차리기도 하고요. 싱크대
흔들리는 거 잡아드리고 밀차 끌고 다니셔야
하니까 문턱 깎아 드리기도 하는 집수리 지원도
있었어요.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너무 멀어서
할머니들이 중간중간 길바닥에서 주저앉아
쉬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쉬시라고 중간중간
벤치도 놔드리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버스가
얼마나 다니는지 정류장이 얼마나 먼지
장곡면의 이동 여건을 같이 조사해서 정책
제안도 했어요. 연장선에서 택시 쿠폰
나눠드리고 택시 타고 병원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했고요. 이 밖에도...





도시에서 살다 보니 농촌에서 이런 것들이 사는 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알고 놀라게 되네요. 돌봄반장님과 5년 정도 함께 활동하셨는데요. 돌봄반장님들의 감상은 어떠신가요.

한 달에 몇 번 이상 뭘 해야 한다거나 하는 성과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마을에 필요한 형태로 참여하거나 스스로 원하는 형태로 자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당을 받지 않아도 이탈하지 않으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동네 할머니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거나 얘기를 듣고 회의에 나와서 의견을 냈더니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잖아요. 그간에는 행정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들을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정보와 자원의 흐름을 갖고 있었다면, 돌봄반장 활동을 통해서 정보와 자원을 전달하는 주체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서 효능감을 느낀다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또 어르신과 돌봄 활동을 하다 보니 일자리로서의 전망을 갖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같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결하고 있거든요. 치매 예방 지도 활동을 나갈 때 주민 보조 강사로 우리 돌봄반장님들이 역할을 해주시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분도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과 모습이 더 다양해지는 걸 목격하고 있어요.

든든한 돌봄반장님들이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 예산이나 자치회나 마을만들기센터 등과 같이 협력하면서 자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함께하는장곡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새마을지도자회 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정보 공유와 실행을 함께 하는 편이에요. 행정과도 되게 밀접하게 관계 맺고 있어요. 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의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행정의 사람이, 복지 팀장님이나 면장님이 1, 2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밀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죠. 어떤 때는 되게 긴밀하고 어떤 때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고. 우리는 행정과 협업하지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잘 굴러가요. 지금 꼭 연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보건지소 진료소. 앞으로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함께하는장곡과 장곡면은 어떤 변화를 상상하고 있나요?

농촌 돌봄 마을 사업에 선정돼서 장곡면에 되게 큰 규모의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에요. 주민들이 같이 공론장을 열고 추진위를 꾸려서 기본 계획을 세운 뒤 설계하고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추진위 민간 간사 역할을 우리 사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탁 준비도 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곳이 수탁받더라도 주민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큰 과제가 될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겠죠.



연대의 시간을 넘어, 자생과 혁신의 조직으로

(사)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회의 회고와 전망

노재정

사단법인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11년 3월, 충남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뜻과 필요에 의해 출범했다. 당시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기업 간의 소통과 연대, 권익 신장,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확대라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경제주체로 자리 잡도록 하자는 것이 협의회 설립의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협의회는 지난 15년 동안 충남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당사자 조직으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돌아보면 그 시간은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제도와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자,

충남의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협의회 역시 회원사 간 교류와 협력, 공동판로 개척, 정책 제안, 교육과 역량 강화, 사회연대경제 인식 확산 등을 통해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하고 충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선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사회적기업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자의 문제를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다. 규모도 업종도 활동 지역도 다른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협의회가 만들어온 중요한 자산이다.



성장의 시간 뒤에 찾아온 위기

그러나 협의회는 지난 시간을 성과만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몇 년은 충남의 사회적기업과 협의회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이 심하게 후퇴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재편되면서 사회적기업들은 경영과 고용, 판로와 성장 기반 전반에서 불확실성을 겪어야 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소비 위축까지 겹치며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경제주체라기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기업처럼 평가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일부 기업의 문제나 제도 운영의 한계를 사회적기업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온 가치와 성과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외부 환경만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돌릴 수는 없다. 협의회 내부에서도 조직력이 약화 되고 회원사의 참여와 결속이 줄어들면서 충남사회연대경제의 정책적 방향을 주도할 내적 동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 회원사의 실질적인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사업, 사회적기업의 성과와 가치를 도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활동도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원 정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조직의 한계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책 환경이 급변하자 당사자 조직으로서의 자립성과 대응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는 특정 시기나 특정 구성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위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은 지속될 수 있는가’, ‘협의회는 회원사에게 실제로 필요한 조직인가’, ‘사회적기업은 변화한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정책 환경이 다시 좋아지더라도 과거의 한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준비해 왔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조직의 외형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협의회와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설정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환의 과정이었다.

회원사와 전·현직 임원, 현장의 여러 관계자가 함께 노력한 끝에 협의회는 2026년 5월 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로 새롭게 출범했다. 법인 설립은 지난 15년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다. 새롭게 출범한 협의회는 ‘신뢰와 협동·자주·자립·자치의 원칙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내 사회적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공유와 연대사업을 통해 회원사의 자생력을 높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한다’는 미션을 설정했다. 비전 역시 분명하다. 회원사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자생력 강화, 혁신적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바탕으로 충남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당사자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법인 전환의 성패는 법인격 취득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전략이 회원사들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찾아온 기회, 그러나 정책만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역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 6월에는 범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사회연대금융 확대 등을 주요 방향으로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개정돼 사회적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사회적기업의 경영 안정망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자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연대경제의 염원이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체계화하려는 제도적 흐름은 분명해지고 있다.

충남의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다. 민선 9기 충남도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사회적금융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전담하는 사회연대경제국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는 사회연대경제를 기존의 일부 기업 지원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변화가 일선 사회적기업의 매출과 고용,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국가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충남의 사회연대경제기업들에게 분명 희망적인 변화다. 새롭게 출범한 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이러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정책환경이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사업의 확대만 기다리고 행정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머문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지원받는 기업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본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있지 않다. 지역사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는 데 있다. 충남이 직면한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고령화와 돌봄 공백, 청년 유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 기후위기, 지역상권 침체, 문화와 교육의 격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행정과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들이야말로 사회적기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협의회는 개별 기업의 지원 요구를 전달하는 조직을 넘어, 충남의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회혁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 회원사 간 상품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공동브랜드와 공동판로를 만들며, 기업이 보유한 인력·공간·기술·유통망을 공유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 대학, 민간기업이 각자의 자원을 연결해 지역 안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AI와 디지털 전환 역시 사회적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변화다. 기술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연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의 기준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경영, 노동 존중, 환경적 책임, 지역사회와의 이익 공유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구별되는 핵심 기준이다. 사회적 가치를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를 측정하고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연대와 협력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15년

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의 지난 15년은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제주체가 충남에 뿌리내리는 과정이었다. 앞으로의 15년은 사회적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충남을 넘어 전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과 협력하고, 사회연대경제의 다양한 영역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개별 사회적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충남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선도하며,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다.

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내세운 ‘자주·자립·자치’는 정부나 행정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책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그것에 종속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도, 과거에 대한 비관도 아니다. 지난 성과는 계승하되 부족했던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전환의 시대일수록 연대와 협력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게 버텨온 사회적기업들이 다시 연결되고, 경쟁을 넘어 서로의 자원과 경험을 나누며, 충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의 주체로 성장할 때 사회적기업의 미래도 새롭게 열릴 것이다. 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적기업협의회의 새로운 출범은 완성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충남의 사회적기업들이 함께 살아남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그 성장이 도민의 더 나은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협의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2026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반기 주요사업 안내

기반조성팀

일자	사업명	장소
상시	사회적가치지표(SVI) 컨설팅	신청기업
상시	사회연대경제 정보연계 사업	온라인
미정	공모사업아카데미 심화과정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미정	사회연대경제 인식확산 교육 ‘임팩트루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11월 14일~15일	히어로페스타	천안 독립기념관

마을기업팀

일자	사업명	장소
상시	찾아가는 진입 교육·컨설팅	각 기업 소재지
상시	내방상담의 날 운영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7월~ 12월	충남투어패스 연계 마을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	-
9월 중	충남 마을기업 서울Pick 판매전	합정역/압구정역
9월 중	2026년 2차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선정 지원	-
10월 24일~25일	2062년 충남·충북·세종 마을기업 상생장터	독립기념관
12월 중	2027년 상반기 마을기업 선정 지원	-

성장지원팀

일자	사업명	장소
상시	경영지원 컨설팅	각 기업 소재지
상시	사회적금융 홍보	온라인
7월~ 12월	경영지원 플랫폼 활성화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미정	충남사회연대경제한마당	미정
7월~ 9월 중	혁신타운 입주기업 코디네이팅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